

투데이 칼럼

전북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제언 1

전북발전자치도청에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많은 외지인이 전북을 찾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기대된다.

최근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북을 스쳐 지나가는 일일 관광이 아닌 숙박하며, 야간 관광을 위한 즐기는 숙박형 관광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북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숙박업도 잘되고 관광의 음식산업이 더욱 잘되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가 두둑해 지기를 바라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비단 전북만의 노력이라면 큰 성과를 내겠지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참신한 노력이 많이 있기에 큰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고 본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도내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노력을 대충 몇 가지 열거해 보고자 한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강진군의 경우 강진군에서 여행객 1인당 소비하는 금액 중 20만 원까지는 강진군에서 50%를 댈 뉘려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제발 우리 강진군에 와서 농산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물도 사고 축산물도 사서 먹어 준다 면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되돌려줄 테니 우리 지역으로 놀러 와 달라는 제살꺾기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차다'라고 같은 값이면 강진군으로 여행을 가지 않을까 싶다. 요즈음 볼가도 많이 올라 먹고 살기도 어려워 여행은 인간생선 품도 못 꾸는 사람들은 강진군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여행하고 물건을 사면 값이 다른 곳에서 사는 것과 비교하여 반값만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8월 24일과 25일에는 달성군 소재 아델리아 호텔에서 수필문화세미나를 하고 다음 날은 고령의 대가야 교본군을 관광하고 대가야 박물관을 돌아본 후 현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현지 고령군수가 직접 찾아와서 고령군을 찾아주신 전국 수필가 비평작가회의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성을를 보여주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여행용 소품을 담을 수 있는 천으로 된 가방과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수건 등을 기념품으로 만들어 고령군 홍보용 종이 가방에 나누어 주어서 받아온 일이 있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는 물적 자본도 투입하고 지역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이 직접 발로 뛰며 관광객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올 봄에는 인실군의 지방 국도를 지나간 일이 있었다. 지나가는 도로 옆에 예쁜 꽃나무를 식재하여 놓은 것을 보았다. 이름을 알 수는 없었지만 빨간색이 도는 예쁜 꽃나무를 식재해서 도로에서 쳐다보니 아름다웠다.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인실군 행정이 돋보였다.

인실군에서 올해 천만 관광객 유치 를 위하여 심민 군수를 비롯한 인실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

다. 점점신중에 있는 붕어섬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인근의 식당가와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각종 인터넷과 신문지면, 광고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른 곳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에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입실치즈 축제에 국내 상위에 랭크된 송가인을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과 기법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입실을 찾는 관광객이 천만이라는 보기 드문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성 없는 전쟁처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관광산업에서 큰 성과를 내려면 관광지 주변의 청결 유지는 물론이고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들의 고개 만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민 모두가 미소 짓는 친절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전북에는 규모가 큰 공장이 없으니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관광산업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여 큰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해 본다.

여기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일이며, 몇몇 사람들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최근 논란을 가져온 드론축구와 관련해 전주시의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적 효과가 의문인 드론축구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는 아바나 주민들



24일(현지시각) 쿠바 아바나 길모퉁이 쓰레기 더미 부근에서 한 과일 상인이 개와 놀아주고 있다. 제재와 경제난으로 연료와 처방 부품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쿠바의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도 아바나가 쓰레기의 바다에 빠지고 있다.

"가자지구·레바논 전쟁 종식"



24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 청사 앞에서 가자지구와 레바논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설

티메프 희생 신청서

1조 원대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희생 신청서를 국내 어느 언론사가 입수했다.

티메프 측은 과소분과 언론보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고 이 사태만 아니었다면 쿠광을 추월할 속도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말,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에 나와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사재라도 털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비판, 책임, 추궁, 처벌 당연히 받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뒤로 도망가고 숨을 수 있는 곳도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곤 반나절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밝혔다. 언론사가 입수한 당시 티몬과 위메프의 '희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이다.

여기에서 티몬·위메프 측은 지난 7월, 정산 지연 사태가 '일시적인 전산 오류에 따른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주장 했다.

삼시간에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과소문으로 변형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판매자 이탈과 환불 요청이 이어져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내년부터 쿠광을 추월하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 입점업체들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자들은 "갑자기 정산해 줄 수 있었던 돈이 언론에서 보도한다고 그게 다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단 며칠 만에."라고 말한다.

실제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당시 위메프 직원은 입점업체들에 '자금 부족'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위메프 직원들은 입점업체 통화에서 "위메프가 약간 미스한 것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비어 있는..."이라고 했다. 구영배 대표는 큐텐그룹에서 자금을 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 드론축구 파문

최근 논란을 가져온 드론축구와 관련해 전주시의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적 효과가 의문인 드론축구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 유용 논란이 제기된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전주시 보조금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졌다.

지출 증빙자료 누락 89건, 계약서 미작성 48건 등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전주시가 보조하는 예산이 깎일까 봐 협회 재산을 숨겼다는 해명에서 보듯 보조금과 무관할 수 없는 성격이다.

전주시는 협회 자체 수익금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협회 자체 감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현장 계도와 주의에 그친 이런 점검이 결국 봐주기식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드론축구 대회와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업체에 발진 유사 규모 대회를 확인한 결과 지급 금액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점검에서 확인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좌식 축소나 방송 중계 여부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소명했다는 것이 시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회 측 해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피기는 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월 기준 교각 28대에 불과한 CBS 박람회 수출 실적이다. 구속력 없는 '드론축구 공 험단 대' 수출의향서를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장은 정부도 드론 레저 시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며, 드론축구를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부를 지속적으로 실득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